



국립해양유물전시관, 국내 최초 '장보고' 특별전



국립해양유물전시관(관장 김성범·金聖範)과 (재)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는 10월18일부터 12월18일까지 2개월 동안 통일신라시대 동북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고 해외경영의 선두에 섰던 청해진(淸海鎭) 대사(大使) 장보고(張保皋) 장군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.

▶ 통일신라시대 해양문화 재조명

이번 특별전은 최근 다시 관심이 높아진 장보고 대사의 실체(實體)를 고고학적인 자료와 문헌기록, 우리 민족의 해양교류사 연구업적 등을 통해 '유형화(有形化)'하는 첫 시도로, 그 옛날 개방과 교류, 평화와 공존을 구현하였던 선구자의 해양문화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특별전에는 문관복을 착용하고 있는 장보고 인물상과 장보고 대사가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복원

한 갑옷, 투구와 칼, 활 등이 전시되며, 전남 완도의 장도 청해진유적과 제주 법화사지, 흑산도, 경주, 부여, 익산 등지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의 대중국 교역관련 유물들이 전시된다.

▶ 당나라와 교역유물 신라도기옹 전시

이들 유물중에는 장도 청해진 유적에서 출토된 방어용 목책(木柵), 해무리굽 청자편, 청동병 등도 포함되어 있다. 또한 일본 후쿠오카 대재부(大宰府)와 고로칸(鴻臚館) 유적출토 유물로, 우리나라 관련 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장보고시대 교역품이었던 신라도기옹(新羅陶器甕)을 비롯하여 신라와 당(唐) 유물들을 대어하여 국내최초로 선보이고 있다.

한편, 특별전 개막행사에는 1980년대부터 학계와 일반 민간차원에서 결성·추진된 '장보고대사 해양경영사연구회'의 김성훈 상시대 총장(전 농림부 장관), 김문경 전 숭실대 교수 등 창립회원들과 1989년 이후 완도 청해진 유적 발굴조사를 벌였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진들이 대거 참석한다.

▶ 장보고 무역선 모형 제막

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증을 거쳐 이창역 울산과대학 교수가 설계하여 제작한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무역선의 모형 제막식 행사도 결들일 예정이다.

장보고 대사는 1200여 년 전, 용기와 신념,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한·중·일 3국을 드나들며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하였다. 이러한 대사의 활동은

바다를 무대로 개척적인 삶을 이끌어낸 청해진인(淸海鎭人)들과 신라인들의 경제·문화적 역량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.

▶ '해양 실크로드 중심지' 泉州서 소재 확인

동서양을 잇는 고대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중국 푸젠(福建)성 취안저우(泉州)에 신라 장보고 세력의 후손들이 건설한 '신라촌(新羅村)'이 있었으며, 주위에는 불교 사찰인 '신라사(新羅寺)'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청나라 때 사서 '남안현지'와 '팔민통지'를 통해 나타난 사실이다.

해상왕 장보고가 활동하던 9세기 무렵 신라인들의 집단거주지인 신라촌은 산동과 장쑤, 저장성 등 황해 연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 남부인 푸젠성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예언덴(葉恩典) 푸젠성 해외교통사박물관 연구원은 이달 초 취안저우에서 개최한 '고대 중·한 해상 교류' 심포지엄에서 "취안저우의 진강(晉江)변에 신

라촌과 신라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강희제 때 편찬된 지방지 '남안현지'에 나온다"고 말했다.

이 사료에 따르면 "22도(都)는 현의 서북쪽 20리에 있다. 이곳의 12개의 마을 중 신라(新羅)란 명칭이 나온다"는 것이다. 이 심포지엄은 한국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(이사장 김재철) 후원으로 저장(浙江)대 한국연구소가 주최했다.

지금은 신라라는 지명으로 남은 신라촌은 취안저우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. 현재 왕(王)씨 집성촌으로 인구는 1800명이다.

예 연구원은 "이들은 명나라 초에 처음 이곳에 이주해왔기 때문에 신라촌의 원주민이나 그 내력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"고 설명했다.

그는 또 남안현지와 팔민통지 등을 토대로 신라촌 근처에는 송나라 말기에 세워진 사찰인 신라사가 있었다고 밝혔다. 원나라 때 소실된 신라사는 명 태조 때 중건됐으나 청나라 초기에는 이미 폐사로 변해 지금은 흔적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.

부산지방해양수산청 '재미있는 배 이야기' 발간 역사적인 배 등 배에 대해 알고 싶은 69가지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21일 선박과 해운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'재미있는 배 이야기(사진)'라는 340쪽 분량의 책을 발간해 관련 기관과 각급학교,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무상배포에 나섰다.

이 책은 일반인에게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선박과 해운에 관한 내용을 누구나 흥미있게 읽고 쉽게 이해하도록 △역사적인 선박 △재미있는 이야기 △선박과 항해의 기초 △항해와 안전 등 4부분으로 나눠 제작됐다. 이 책에서는 8000년 전 우리 고대 선조들이 만든 목선, 한국전쟁 중 1만4,000여명의

피란민을 수송해 기네스북에 오른 '메리디스 빅토리 호', 구한말 고종황제가 도입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군함 '양무호', 해방 후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입항해 교민들을 올린 '고려'호 등 우리에게 의미있는 선박들을 소개하고 있다.

또 SOS 구조신호를 처음 사용한 여객선 '타이타닉호', 어린이와 여자를 먼저 구하는 전통을 세운 '버큰 헤이드호' 등 특별한 배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여성 해적, 선장의 의자, 적도제, 선박 명명식 유래, GPS(위성항법시스템) 등 선박과 해운에 관한 유익하고 다양한 상식거리 69가지를 분야별로 수록했다